1. 신석기시대

<정답> ④

<해설> ④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부터 사용되었고, 신석기 시대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입술 단면에 원형·방형·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토기와 검은 간토기는 철기시대의 유물이다.

2. 여러 나라의 성장

<정답> ②

<해설> ② 혼인을 정한 뒤 신부 집의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서옥제는 고구려의 풍습이었다. 옥저의 혼인 풍습이었던 민며느리제는 두 집의 남녀가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방식이었다.

3.삼국의 정치적 특징

<정답> ③

<해설> ㄴ 고구려를 피해서 백제의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문주왕 때이다(475). 동성왕 때는 신라 귀족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여 동맹을 강화하였다. ㅁ 근초고왕 재위 시기인 4세기 때 아직기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기마술을 알려주고,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한편 6세기 성왕 때는 5경 박사, 역박사, 의박사, 천문박사 등을 일본에 보냈고, 특히 노리사치계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계율종)을 전하였다.

4.신라 하대의 상황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은 신라 하대인 진성여왕 때 전국 곳곳에서 도적들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라 하대의 혼란은 진성 여왕 때에 자연재해,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극에 달하였다. 이에 중앙 정부는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고자 하였고, 농민들의 생활은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결국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유망민이 되거나 초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민란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었다. ① 공주 명학소민인 망이·망소이가 일으켰는데, 정부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난을 무마시켰다. ② 홍경래의 난은 19세기 세도정치 상황에서 서북민에 대한 지역적 차별 때문에 일어난 반란이다. ④ 김흠돌의 모역 사건은 통일신라 중대 신문왕 때 일어난 사건이다.

5. 고려 시대의 사건들

<정답> ①

<해설> ㄷ 박서의 귀주성 전투는 저고여 피살 사건을 구실로 살리타가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던 몽골의 1차 침입 때인 1231년의 일이고, ㄴ 『상정고금예문』은 강화천도기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1234), 인쇄본은 남아있지 않으며, ㅁ 원종이 몽골과 화의하고 여·몽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들을 토벌함으로써 1270년 개경환도가 단행되었다. ㄱ 충렬왕 때 일연의 『삼국유사』가 편찬되었고, ㄹ충선왕은 만권당을 설립하여 성리학 도입과 보급에 공헌하였다.

6. 고려 시대

<정답> ①

<해설> ② 고려 시대에는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였고, 원 간섭기인 충선왕 때 수시력을 채용하였다. ③ 수덕사 대웅전은 기록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목조 건물로,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다.④ 의천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고,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7.고려 시대의 문학작품

<정답> ③

<해설> ㉡『백운소설』은 이규보의『동국이상국집』에서 시평, 시화, 시론을 발췌하고 거기에 몇 가지 다른 기사를 포함하여 편찬한 시화집이다. ㉢『보한집』은 고려 후기에 최자가 엮은 시화집이며, ㉣『역옹패설』은 고려 말에 이제현이 지은 시화·잡록집이다.

8. 고려 시대의 사회 모습

<정답> ②

<해설> ② 향도는 고려 초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마을의 상장제례를 주관하는 마을 공동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9.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

<정답> ③

<해설> ③ 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사족의 혈통이지만 모계가 첨이어서 사족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 이들이다. 때문에 중서라고도 불렸으며,『경국대전』에 '문과 응시 금지'가 규정되어 있었다.

10. 조선 시대의 문화

<정답> ③

<해설> ㉠ 세종 때 편찬된『농사직설』은 삼남 지방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였다. ㉡『양화소록』은 강희안이 지은 원예서이다. 강희맹이 지은 농서는『금양잡록』이다. ㉢ 조선 문종 때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이민족과의 전쟁사를 정리한『동국병감』이 간행되었고, 영조 때 군사 훈련 지침서인 '진법'이『병장도설』로 재간행 되었다. ㉣『필원잡기』는 서거정의 설화집이며, 성현이 지은 설화집은『용재총화』이다.

11. 정묘호란의 전후의 상황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건은 사료의 '인조 5년'을 통해서 1627년 정묘호란 직후 형제 관계를 수락하는 내용이란 것을 알 수 있다. ① 후금의 건국은 1616년, ②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던 명나라 신종의 은의(恩義대)를 추모하기 위해 쌓은 제단인 대보단 설치는 숙종 때인 1704년에 이루어졌고, ③ 모문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조선의 가도에 주둔하여 조선과 명나라 및 후금 사이에서 빚어진 가도사건은 1623년에 일어났다. 이러한 가도 주둔 사건은 조선이 후금의 침입을 받아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④ 삼전도의 항복은 병자호란 때인 1636년의 일이다.

12. 붕당정치

<정답> ②

<해설> ㉠은 동인, ㉡은 서인, ㉢은 남인, ㉣은 북인이다. ② 경신환국은 남인 영수 허적이 유악을 왕의 허락없이 가져간 것이 발단이 되어 숙종이 군권을 모두 서인에게 넘겨주었고, 3복의 변을 통해 남인을 역모로 몰아 윤휴 등을 사사하는 등 남인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인 내부의 분열이 이루어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었다.

13. 조선시대 왕의 정책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 숙종, ㉡ 정조, ㉢ 영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 정책을 실시한 것은 정조의 업적이다.

14. 조선 시대의 실학자

<정답> ③

<해설> ④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중앙행정의 개혁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책이며, 『목민심서』는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이다.

15. 개항 전후의 조약

<정답> ①

<해설> ㉠ 강화도 조약,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① 강화도 조약 이후 1876년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1880), 인천(1883)이 차례로 개방되었다.

16. 동학 농민 운동

<정답> ③

<해설> ③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일본은 갑신정변 직후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톈진조약에 근거하여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당시 청과 일본은 톈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서 공동 철병하였고, 이후 파병 시에는 반드시 서로 문서를 보내 통보하기로 하였다.

17.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대한국 국제' 이며, 밑줄 친 '제국' 은 대한제국이다. 대한 제국은 1899년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여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 국가이며, 전제 군주국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경제적인 개혁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①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 당시 1차 김홍집 내각 때 수립되었다. ③ 지조법 실시, 호조의 재정 일원화는 갑신정변 때 이루어졌다. ④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인 1880년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고, 1881년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신설되었다.

18.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 단체

<정답> ②

<해설> ㉠은 독립의군부, ㉡은 의열단, ㉢은 한인애국단, ㉣은 한국광복군이다. ② 의열단은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아 활발한 투쟁을 벌였다.

19.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헌 과정

<정답> ②

<해설> ㉡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는 1927년 3차 개헌과정에서 성립되었다. ㉢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는 1927년의 3차 개헌과정에서 성립되었다.

20. 현대사 사건들

<정답> ④

<해설> ㉠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여 국제 수준의 노동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로 선진적 금융 문화를 정착시켰다. ㉢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이 이뤄졌고, ㉣ 대한민국 제 14대 대통령 선거는 1992년 12월에 실시되었고, 이때 3당 합당으로 여당 후보가 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